

# “목포항 발전 위해 정기선 유치 늘려야”

### 개항 120주년 기념 세미나 수출자동차 전진기지 육성 인프라 구축 적극 나서야

목포는 항구다. 1897년 개항(開港), 120년이 된 항구 도시다. 일본 영사 이노우에 가 한 달 반 동안 한반도 서남해안을 둘러 보고 항구 최적으로 꼽은 곳이 목포와 진남포(북한의 남포)다.

개항 이후 목포는 호남의 관문으로 일제 시대에는 수탈의 창구가 되기도 했지만 해상교통의 요지이자 무역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예전의 북적거림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최근 목포해양대에서 열린 ‘목포 개항 120주년 기념, 2017 목포항 발전전략 세미나’도 이런 고민의 일단이 반영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세미나는 목포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 해운·항만·물류 전문가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목포항의 발전전략, 원활해



목포의 낭만과 전설이 깃든 삼학도와 목포항(1930년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권 중심도시인 목포시와 목포항만의 상생 발전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최경훈 목포해양대 교수는 ‘목포항의 타 항만 대비 비 경쟁력 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목포항은 정기노선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목포항을 기항하는 정기선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자동차 해운선사인 유코카캐리어(주) 정찬욱 목포사무소장은 “목포항을

통한 수출자동차 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목포항이 수출자동차 전진기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목포항의 자동차 수출물량은 ▲2014년 37만9644대 ▲2015년 38만3805대 ▲2016년 38만8687대에 이어 올 3분기까지 39만 5322대에 달하며 사상 처음 처음 40만대를 넘어 50만대까지 돌파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포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21세기 신해양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은 바다에 있고, 목포는 지금 제2의 개항을 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면서 “수출자동차 전진기지 항만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시-중 샤먼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 명륜동에 샤먼로 명명... 표지시설 제막

목포시가 한중관계 회복 분위기에 맞춰 중국과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명륜동에서 중국 샤먼(廈門)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표지시설 제막식을 열었다.

시는 원도심 명륜동 일부 구간에 샤먼시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샤먼로’로 명명했다. 도로 바닥에는 이를 알리는 동판을 설치했다.

2007년 목포시와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샤먼시에는 명예도로인 ‘목포로’가 지정됐다.

시는 사후 면세점 거리를 포함한 샤먼로가 중국 관광객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 잡아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샤먼시는 푸젠(福建)성 남부 연안에 있는 중국 5대 경제특구이자 최대 석재 가공지로 잘 알려졌다.

목포시는 대중국 태스크포스를 중심



목포시 명륜동에 설치된 샤먼로 표지시설.

〈목포시 제공〉

으로 국제항로 개설, 관광 협력, 수산물 수출선 개척, 대양 산단 투자유치 등 중화권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10년간 변치 않고 교류해온 두 도시가 전략적이고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개항문화거리 조성 등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음달 14일 선정 주목

목포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1897 개항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중심 시가지형’ 부문에 신청서를 냈고 ‘보리마당’ 조성사업은 전남도의 ‘주거지원형’ 부문에 공모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해당 부문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고 전남도도 지난 22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등에 대한 2차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최종 선정 여부는 다음달 1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정될 경우 1897 개항 문화거리 사업의 경우 293억(국비 150억, 시비 100억, 기타 43억)을 들여 5년간 추진되며 보리마당 사업은 4년간 195억(국비 100억, 시비 70억, 기타 25억)을 투입해 진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역사문화를 보존·활용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주민 편의 고려않는 목포시 민원 행정

### 행안부 인·허가 전담창구 권고

###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목살

목포시가 민원 행정과 관련,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조차 묵살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목포시청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민 응대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편의를 위해 마련한 ‘인구 20만 이상의 시는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운영’ 도록 지침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내 5개 시 중 목포를 제외한 여수·순천·나주·광양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2개 군도 민원실에 ‘허가 전담팀’을 두고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목포시민들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똑같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목포시 민원봉사실 전경.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민원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 불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은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담 부서를 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 오전 9시 전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 청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겨울철 난방 시스템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융통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담부서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대 명품 헬스케어 도자기 품평회·기술교류회 눈길



헬스케어용 도자기 제품 품평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출품 회사 관계자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명품 헬스케어 도자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HELPS사업단)은 지난 24일 교내에서 제품 종합 품평회 및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목포대의 ‘헬스케어용 생활도자 개발 및 지역 도자산업 명품화 사업’ 첫 해의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헬스케어 명품 도자기 문화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 최대의 생활도자기 클러스터인 목포·무안의 관련 기업과 강진의 전통 도자업체 등 27개사가 작품을 출품한 가운데 지역내 도자업체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헬스케어용 도자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대 김철우 교수의 ‘헬스케어용 상품의 정의와 기획’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시제품 평가와 사업화 컨설팅이 진행됐다.

조영서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장(금융보험학과 교수)은 “국내 도자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지역 산업 성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남의 명품 도자기 브랜드 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슬라브 옥상 스틸 방수 단열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 패널

아파트, 학교, 주택,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옥상 시공

- ▶ 방수, 단열 이중효과!
- ▶ 냉·난방비 절감효과!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합리적 가격, 단 한번 시공!

※ 무료 출장 견적내드립니다.

목포권, 순천·여수권 등 대리점 모집(영업 및 시공)

**TWIN 트윈스틸** (모던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5(신안동 478-18)

H 010-9229-3530  
062-5 3 1-3530

##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영동·소흥호텔 / 주월동·성관어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문성동·안석돌출판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쌍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지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목성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품,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은누리마트 / 서양동·아름다운고주유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